

# 이탈리아 교량 붕괴... 최소 42명 사망



무너져내린 모란디 다리 이탈리아 리구리아주 제노바 A10 고속도로의 일부인 모란디 다리가 14일(현지시간) 붕괴, 가운데 부분이 끊어져 있다. 1968년 완공된 모란디 다리는 탐에 교량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장교로 총 길이는 1.1km인데 이날 중간의 길이 80m 정도가 무너져 내렸다. /연합뉴스

## 제노바 고속도로 사장교 ... 잔해더미 속 필사의 구조작업 50년된 교량 부식·폭우 등 원인 추정... 구조적 결함 지적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서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 4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이탈리아 리구리아 주 제노바 A10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리 붕괴로 최소 4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노바 경찰의 대변인은 "가장 최근까지 공식 사망자는 42명"이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 250명의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서 탐 지견을 동원해 밤을 새우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잔해더미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실종자가 4~12명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놓고 다리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 평소 교통량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68년 완공된 모란디 다리는 탐에 교량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장교로, 총 길이는 1.1km에 이른다. 무너진 교량 구간은 길이 약 80m로, 당시 다리 위에 있던 승용차와 트럭 등 약 35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밀라노를 잇는 A10 고속도로에 있는 이 다리는 제노바를 포함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과 리구리아 해안을 연결하는 분기점에 자리 잡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현지 소방대의 루카 카리 대변인은 AP

통신에 "마치 지진 현장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잔해더미를 제거하는 것,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라고 말했다.

이 다리는 2016년 보강공사를 했지만 2년 만에 대형 사고가 나서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리가 건설될 당시부터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노바 대학의 안토니오 브렌치코 교수가 지난 2016년 한 인터뷰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AP 등에 따르면 브렌치코 교수는 인터뷰에서 모란디 다리의 디자인에 대해 "공학기술의 실패"라며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유지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50여년이나 된 다리의 부식 문제가 붕괴의 주요 원인일 수 있고, 특히 사고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 교통량 등

날씨와 환경 조건도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찾은 다날로 토니넬리 이탈리아 교통부 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사"라면서 인제로 확인된다면 그 누구라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넬리 장관은 사고 구간의 영업권을 지닌 회사 측이 최근 보수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2000만 유로 규모의 안전 진단 사업을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 건설된 많은 다리와 사장교를 대상으로 충분한 보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엄청난 비극"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현대 국가, 현대 시스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폼페이오 방북 임박설

9월 남북정상회담 앞서 비핵화 협상 분수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장관과 월요일(13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북미가 비핵화 논의 교착 국면 속에서도 수면하 실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되면 4번째가 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9월 안에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

미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노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FFVD'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확인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연합뉴스

# 반성을 모르는 아베

일본 패전추도식 ... 6년째 '가해' 언급 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 종전일(패전일)을 맞아 가진 희생자 추도식에서 또다시 일본의 전쟁가해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일본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과거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총리들은 지난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夫) 총리 이후 '전몰자 추도식'에서 가해 책임을 언급해왔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2007년 1차 정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전쟁의 반성에 입각해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총리에 다시 취임해 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한 이후에는 올해까지 6년째 '반성'과 '부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는 "전후 우리나라(일본)는 평화를 중요시하는 나라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세계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 썼었다"며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하면서 어떤 시대에도 이러한 부동의 방침을 일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전후에 길게 이어지는 평화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전몰자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일본의 가해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아베 총리와 대비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시마바야마 사히고(柴山昌彦) 자민당 총재 특별을 통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납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공물료는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납부됐다.

아베 총리가 패전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낸 것은 2012년 12월 취임 이후 6년 연속이다.

아베 총리는 재임 중이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다. /연합뉴스

# 미국 - 터키, 본격적 무역전쟁 돌입

터키, 외환위기 보복 승용차·주류·담배 관세 2배 인상

미국과 통상 갈등을 빚는 터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주류, 담배 등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2배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터키 외환위기를 촉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터키가 본격적 무역전쟁으로까지 접어들며 양국의 해

묵은 불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15일 관보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붙은 관세는 120%, 주류에는 140%, 일담배에는 60%까지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dpa, AP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화장품, 쌀, 석탄, 플라스틱, 종이 등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마찬가지로 2배까지 끌어올렸다.

푸타이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의도적 경제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호관계 원칙의 틀 내에서 관세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터키는 터키에 장기 구금된 미국인 목사의 석방 문제, 시리아 사태 해법 차이, 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 문제 등을 놓고 최근 격한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의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판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6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가)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양이파크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1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